

# 아스팍 (ASPAC)

## 양돈 세미나 參加記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 자유중국의 주난에서 개최된 ASPAC 양돈 세미나에 한인규, 설동섭 박사가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에 본지는 “한국의 양돈업”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돌아온 한인규 박사의 시찰기를 전제하여 한국 양돈업을 세계의 시점에서 관찰해 보고자 한다.



한 인 규  
(서울대농대 교수)

### 1. 서언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 자유중국의 “주난”에 있는 타푸시에서 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 주최로 양돈세미나가 개최된바 있었다. 이 세미나는 두가지의 행사로 구성되었는데 한 가지는 자유중국의 양돈분야를 견학하는 일이었고 다른 한가지는 각국의 양돈현황 및 문제점을 소개하는 일이었다. 먼저 첫째로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 세미나는 자유중국의 양돈과학연구소 (Pig Research

Institute Taiwan)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농촌부흥회 (Joint Commission on Rural Construction)가 ASPAC과 함께 세미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주최하였다는 사실이고 둘째로 이들 각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이 같은 큰 규모의 국제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더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자유중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외로운 입장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참가국과 외교관계가 없음을 연상할

들의 노력에 대해서 가상함을 느끼기 까지 하였다. 일례를 들면 일본과는 이미 국교가 단절되어서 일본대표가 자유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자유중국 이 이같은 세미나를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 있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아래에 필자가 농촌진흥청의 설동섭 박사와 함께 한국대표로 참가한바 있는 ASPAC 양돈 세미나에서 보고 느낀것을 기행문 형태라기 보다 보고서형태로 소개 하고자 한다.

## 2. 자유중국의 양돈업

우리를 각국대표는 먼저 台北市에 있는 ASPAC 의 식량비료센터에서 4月26日 오전에 간단히 개회식을 가진 다음 “주난”에 있는 양돈과학연구소의 내빈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점심을 먹은 다음 台糖公司 소속 축산시험장과 양돈과학연구소를 견학하였다 자유중국의 양돈업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앞서 있고 그 규모도 또한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었다 자유중국의 돼지사육두수는 약400만수이고 년간 도살두수는 550만수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하면 약 3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소개에 의하면 농업생산고중에서 쌀이 29.8%로 제일 높고 다음이 돼지로서 21.7%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민 1인당년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29.5kg으로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하면 거의 9배나 되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유중국의 축산은 곧 양돈업을 뜻하는 것일만큼 양돈업은 발달되어 있으나 낙농이나 비육우는 거의 없고 양계와 오리 가 어느 정도 발달 하였을 뿐이었다. 앞에서 말한 두 연구기관의 규모나 시설은 물론 연구원들의 우수함에 우리는 다시한번 감탄하였다. 이 두 연구기관에는 돼지 50,000두, 비육우 3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월 2000톤 생산 규모의 배합사료공장이 있는가 하면 14정보에 달하는 양어장, 100ha의 초지가 있었다. 듣건데 양돈부에서는 흑자경영이 되나 비육우부

에서는 적자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놀란것은 그 큰 양돈장이 컴퓨터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과 어느 연구실을 방문하더라도 꼭 영어로 사기의 업무는 소개할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점이다 우리들 각국대표는 매우 흥미있는 첫날 견학을 끝내고 양돈과학연구 소장 대만대학 교수 이신Koh박사가배우는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 한가지씩 한가지씩 나르기를 열 다섯쟁반에 이르도록 시간을 두고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한국의 한 여름보다 더더운 그곳의 일기에 곤욕을 치른 대신 이날 이후 매일 같이 먹여주는 이 푸짐한 저녁식사로 인하여 즐거운 나날을 보낼수 있었다. 이들 대만사람들 견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음악이 있고 눈을 위해서는 영화를 즐기면서 입을 즐겁게 해주는 예술에는(飲食)소홀하기 짝이 없다면서 타국인을 동정하는 것이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견해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 대표와 일본대표가 견디기 어려운 더위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으며 찢찢매고 있는데 필리핀이나 태국대표는 아주 시원하다고 하는가 하면 중국인들은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좋다고 하여 웃지못할 커다란 해차이를 빚기도 하였다.

다음날 4月27日에는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양돈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미아오리” 종축장을 둘러본 다음 적은 규모의 양돈농가를 시찰하였다. 그들의 경우 소농(small farm)이라면 대개 母猪 ~6두와 육성비육돈 50두를 기르면서 차전(3ha 정도)이나 淡水養魚場(1ha) 또는 수박 같은 채소농사(1ha)를 곁들인 농가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 산농양돈가들도 완전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것이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작년과 올해는 돼지 한 마리를 키워서 시장에 내놓으면 약50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서 흐뭇해 하는 것이 있었다 20kg짜리 돼지값은 적 55000원이었고 20hg짜리 돼지새끼값은 약 8000원 정도라는 것이었다. 산농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이

있고 산농이 생산한 돼지를 우선적으로 수출해주는 정책적 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에는 “유안린”에 위치한 퇴역장병 양돈부락을 둘러 보았다. 군에 복무하기에 부적합한군장병 약 30만명을 일정기간에 걸쳐 퇴역시켜 여러가지 직업을 갖게 하는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서 양돈부락 조성이 구상되었다는 것이 이 부락에서 약 200세대의 소규모 양돈농민이 정착해서 제각기 1동식의 돈사를 가지고 5모돈-50비육돈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돈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가지고 논밭농사를 지어서 살아 가고 있는데 가구당 연간 소득이 이미 2000불이 넘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 사업은 계획추진 했던 JCRR의 양돈전문가는 이 사업의 계약서에 농민과 함께 도장을 찍는날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고 도장찍는 손이 떨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성공했다는 공으로 표창을 받고 보니 감개가 무량했다는 것이다.

4월28일 오전에는 창화중축장, 농민조합 양돈농가를 둘러 보았다. 창화중축장에서는 대단위 메탄가스 발생시설과 클로레라 생산장을 본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메탄가스 발생탱크는 플라스틱 터널로서 길이 250m, 직경이 2m나 되나 거대한 것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로 15hw짜리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였다. 한편 거기서 나오는 폐수로는 클로레라를 배양하는데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오후에는 돼지경매시장과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사료공장을 둘러 보았다. 그날 저녁을 우리는 “다인”에서 쉬었는데 여기서 아세아채소센타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효근박사내외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고국 이야기와 중국인의 생활철학등의 이야기로 하루 밤을 즐겁게 보냈다.

4월29일 오전에는 더욱 기승을 보리는 더위에 시달리면서 대만성 축산시험장을 견학하였다. 돈사의 수만도 30동이 넘는 그곳의 양돈부규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거기서 우리가 대만 재래돈(도원종)을 볼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

다. 오후에는 리타주식회사라는 대규모 양돈회사를 견학하였다. 그회사에는 연간 18만톤을 자랑하는 초현대식 사료공장을 보았고 50,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장과 미국농무성에 의해서 공인된 돈육처리장을 견학하였다. 그날 저녁을 우리는 대만의 남단에 위치한 “카오싱”이라는 항구도시에서 1박하게 되었다. 거기서 오래전에 “카오싱”으로 이민온 한국어부들의 넉넉지 아니한 생활애기를 듣고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4월30일에는 우리의 모든 축제여행을 끝내고 세미나가 열릴 “타푸”에 있는 양돈과학연구소로 돌아 왔다. 우리 일행은 그것이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간에 발전된 대만의 양돈업을 어느 정도 이해 할수 있었던것을 큰 소득으로 여기게 되었다.

### 3. 양돈 세미나

5월1일은 일요일이었으나 우리는 일정표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발표회에 다음과 같은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필자는 첫번째 좌장을 맡아 발표회를 사회할 기회를 가졌다.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이번에 우리들 한국대표는 자유중국으로부터 매우 정중한 예우를 받은것으로 인정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아늑한 숙소를 제공함은 물론 파티 좌석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상석에 우리를 앉히곤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나 개인이 Koh교수와 친분이 두터웠던 탓도 있었지만(우리들은 각각 양국 축산학회회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중국과 국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된다.

- ① 自由中國의 山農養豚의 이점(ASPAC의 Mr. M. D. Gujman)
- ② 도입사료절약대책 (양돈과학연구소의 Dr. T. P. Yeh)
- ③ 아세아의 양돈경제(ASPAC의 Mr. N. S. Lee 그리고 午後에는 그 부근에 있는 대만식품연구소, 대만 시아나미드제약회사를 둘러보았다.

아래에 참고로 5月2日과 3日 兩日에 발표된바 있는 세미 ' 제목과 발표자명을 소개하기로 하는 바이다

5月2日(午前) ① 교잡에 의한 양돈생산의  
요율개선—Prof. C. Charan  
(미국)

② 돼지의 도살제종과 산육특  
성—Prof. V Arganosa (필리  
핀)

③ 돼지—작물—양어 농기—Mr  
C Huang (중국)

5月2日(午後) ① 메탄개소의 코로레라생산  
—Dr. Y Y. Chow (중국)

② 돼지고기의 저장—Dr. I. K.  
Hwang (중국)

5月3日(午後) ① 돼지의 人工 수정—Prof. T.  
Niwa (일본)

② 아세아의 돼지질병—Prof.  
S. Namoka (일본)

③ 자유중국 양돈업의 문세회  
—Prof. F. K. Koh (중국)

④ 韓國의 양돈업—Prof. I. K.  
Han (한국)

5月3日(午後) ① 泰國의 산농양돈—Prof.  
C. Charan (미국)

② 필리핀양돈의 문제점— of  
M. Supnet (필리핀)

③ 日本의 양돈업—Prof. T.  
Niwa (일본)

이상의 여러가지의 발표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첫째 아세아의 양돈업은 아직도 사육방법이 영세한 시농중심의 것이다 둘째 그 중에서는 일본과 자유중국이 좀 앞선 나라들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두수는 200만두 미만으로서 자유중국의 400만두, 필리핀의 600만두 일본의 일본의 800의 만두, 泰國의 400만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편이 라는 것 은이나

#### 4. 緒 言

필리핀대표는 우리나라 N도건회사가 자기 나라에서 고속도로 건설중에 있는데 필리핀사 사람들은 낮에도 일을 하지 않거늘 코리언들은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하다면서 우리의 부지런함에 탄복을 하는것이였다 자유중국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중공업은 확실히 자기나라보다 일선 있다면서 한치의 눈부신 발전상을 부러워하는 소리로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데 대해 사부와 긍지를 느껴도 좋을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 할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 학생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하고 일꾼들은 일을 더 해야할 시 절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양계 및 양돈업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하셨도 사실이나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에는 우리도 이만하면 하는 자만에 빠져 있는 사이에 실질적인 성장이나 내실을 이룩하지 못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얘기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아직도 더 많은 발전은 해야할 축산업의 일부야인 것이다 사료공장도 그렇다 우리나라의 사료공장은 배합장이지 사료가공업을 하는 곳은 아닌것 같고 외국의 그것들과 비교하면 한심하기 기를데 없 - 형편이나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사람들의 “이만하면”라는 기만심이나 앞으로의 더욱 앞찬 발전을 위해 해당분야의 지도자는 물론 행정하는 이나 기술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돌아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 원하는 마음 간절하나

원래 여행경험은 많은 편이나 써본 경험이 없어서 이 말이 제대로 되었는지 걱스스럽다 독가의 이해를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하루 속히 선진내이에 끼어들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놓는다